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연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심현정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현자

1. 서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던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 가계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겪는 재무적, 비재무적 충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 시기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확대 등 국민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도 함께 시행되었고, 학계에서도 은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초기 학계와 시장의 관심은 은퇴자금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에 있었다. 은퇴자들이 경제활동기에 축적한 자산과 연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은퇴 준비 수준을 점검하는 차원의 연구(여윤경, 2005; 여윤경·김진호, 2007; 강성호 외, 2009; 이지영·최현자, 2009; 전승훈 외, 2009)가 많이 수행되었다. 시장에서도 은퇴준비수준을 점검하고 은퇴를 대비한 재무적, 비재무적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판매되어 왔다.

이후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성숙되고 은퇴생활자들이 늘어가면서, 은퇴준비 중심이었던 학계와 시장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100세 시대로 대변되는 기대수명의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정년축소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은퇴 자산의 운용과 인출전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가계의 소비지출은 해당 가계의 필요와 욕구, 라이프스타일, 복지 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은퇴자 가계의 경우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인한 제약 속에 생활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그들의 심리적, 재무적 복지감과 관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을 다룬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규모와 소비지출양식을 고찰하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접근방식을 취하거나 시점 간 비교에 근거하고 있어 은퇴 전후 가계의 욕구와 필요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계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이론적 배경

2.1.1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

생애주기가설(Modigliani and Brumberg, 1954; Ando and Modigliani, 1963; Modigliani, 1986)은 가계의 형성에서 가구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까지 생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계의 소득과 소비, 저축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다. 생애주기가설의 핵심은 합리적인 가계의 경제적 목표는 전 생애에 걸쳐 할인된 효용(discounted utility, 미래의 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애주기가설의 기본 가정들이 현실과 일치하기 어렵고, 생애주기가설로 설명되기 어려운 가계의 소비지출 행태가 나타나면서 생애주기가설은 가정을 보완 또는 수정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보다 확장된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다. 특히 은퇴 후 소비지출을 설명하기 위해 Hurd and Rohwedder(2003)는 불확실성을 가정한 생애주기가설을 상정하여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이 합리적 주체로 하여금 소비를 재분배하게 만들면서 소비에 있어 감소 및 단절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고, Hurd & Rohwedder(2005) 역시 시간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고, 실질이자율이 0이 아닌 형태로 모형을 가정한다면,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1.2 은퇴소비퍼즐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1990년대 이후 해외에서 행해진 은퇴와 가계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가계가 은퇴 후에 갑작스러운 소비의 감소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Bank, Blundell and Tanner, 1998;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 2001; Hurd and Rohwedder, 2003; Laitner and Silverman, 2004; Haider and Stephens, 2004; Smith, 2006; Fisher et al, 2005, Aguiar and Hurst, 2008)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일생에 걸친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인 생애주기가설로 설명되기가 어려워 “은퇴소비퍼즐(Retirement-consumption Puzzle)”로 지칭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소비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규모는 어떠한지, 원인은 무엇인지 해석하고자 했다. 은퇴소비퍼즐을 해석하는 한 흐름은 생애주기가설의 기본 모형이 가정하지 않았던 요인을 통해 은퇴 후 소비감소 원인을 설명한다. Banks et al.(1998)은 은퇴 시점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그 이유로 보았으며, Hurd & Rohwedder(2003), Smith(2006)를 비롯한 Barrett and Brzozowski(2010), Chiang(2012)은 은퇴시기의 불확실성과 갑작스러운 조기은퇴, 또는 비자발적인 은퇴로 인해 급격한 소비경로 조정이 생긴다고 하였다. Laitner & Silverman(2005)은 소비와 여가 효용함수의 비분리성과 현실에서 노동기회의 불연속성이 은퇴 전후 소비의 불연속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Bernheim et al.(2001)과 Haider and Stephens(2004)은 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소비감소가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생애주기가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은퇴소비퍼즐을 해석하였다.

이후 일련의 연구들은 은퇴 후 소비감소 현상은 원인을 밝혀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Hurst(2007, 2008)는 은퇴 후 소비가 감소하는 비

목은 식료품비와 노동관련지출이며 이들 비목에 대한 소비감소는 퇴직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므로 더 이상 '은퇴소비퍼즐'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였다.

은퇴는 가계 생애의 한 부분에 속하는 이벤트로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도 생애주기가설의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상적으로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이 생애주기가설과 대치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은퇴소비퍼즐연구의 방법론과 현상에 대한 해석을 일부 차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에도 은퇴소비퍼즐로 볼 수 있는 은퇴 후 급격한 소비감소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2 선행연구 고찰

2.2.1 은퇴 전후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1)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

해외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 중 Banks et al.(1998)은 1968~1992년 25년 동안의 British Family Expenditure Survey를 활용해 영국가계소비를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모델 안에서 예상 가능한 수준 이상의 은퇴 후 소비감소를 발견하고 은퇴 전후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충격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Smith(2006), Barrett and Brzozowski(2010), Chiang(2012)는 각각 영국, 호주, 미국의 데이터를 활용해 은퇴시기의 불확실성 및 갑작스러운 조기은퇴가 은퇴시점의 갑작스러운 소비감소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Smith(2006)의 경우 영국의 1991-2001년 가구패널자료를 활용했는데, 비자발적 은퇴자들이 소득의 상실이나 연금액 감소 등의 부정적 자산충격으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을 식품소비가 11%가량 감소함을 통해 보여주었다. Barrett and Brzozowski(2010) 역시 호주의 연간 가구패널 2001-2007년 데이터를 통해 은퇴가계는 근로가계보다 식료품 소비가 2.6% 적었고, 비자발적으로 은퇴했다고 응답한 경우 약 3.3~3.9%의 유의한 소비감소가 있음을 보였다. Chiang(2012)은 미국의 2001-2009년 자료를 분석해 비자발적 은퇴로 인해 총소비지출이 7%, 비내구재가 6% 감소함을 보였다.

한편, Hurd and Rohwedder(2008)는 HRS와 CAMS 패널데이터를 통해 은퇴 후 소비감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노동과 관련 비용의 감소나 예상치 못한 은퇴, 은퇴 후 시간이 소비의 효율성은 높이는 현상 등으로 설명이 가능한 정도라고 하여 소비 감소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Hurst(2007, 2008) 역시 은퇴 시기 소비 변화에 있어 소비비목 간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이 나타나며,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 감소는 식료품비와 노동관련 지출 비목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은퇴소비퍼즐에 관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은퇴 후 소비지출감소 규모나 감소하는 소비비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은퇴소비퍼즐의 존재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있으나 대체로 갑작스러운 소비감소 현상이 관측되는 경향이 있었다.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 변화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횡단적 비교방식

을 택한 연구 중 대표적으로 여윤경(2002)는 가구주연령이 65세 이상인 은퇴가계와 비은퇴가계의 총 소비지출 및 비목별 월 소비지출액을 비교해 은퇴자가계의 총소비지출이 유의하게 적음을 보였다. 윤재호·김현정(2010)도 가구주 연령이 50~80세 인 가구주를 은퇴여부에 따라 구분했을 때 은퇴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적다고 하였다. 패널자료를 활용해 은퇴 전후 소비지출변화를 시점 간 분석 한 경우 연구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가 보였다. 전승훈(2005)의 연구는 가구주가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은퇴한 193가구를 비교한 결과 은퇴 후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석상훈(2010)의 후속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7년에 은퇴한 가계의 균등소비지출은 연평균 603.6만원으로, 은퇴 전과 비교하여 약 13.3%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가계 소비지출함수를 구성해 패널분석한 연구결과 안종범·전승훈(2003)은 은퇴여부가 가계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고, 전승훈(2005)에서는 오히려 은퇴가계의 소비지출이 더 많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을 분석은 유경원(2012)의 경우 은퇴는 총 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횡단분석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의 변화를 다룬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은퇴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자료와 연구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의 변화를 다룬 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5.7%에서 최대 20%까지 총 소비지출의 감소가 보고되었고, 식료품비와 비내구재구입비를 이용해 분석한 경우 대체로 은퇴 후 해당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 중 동일가계의 은퇴 전후를 비교한 경우를 살펴보면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많았고,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연구방법에 따라 은퇴 후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일반화가 어려웠다.

은퇴 후 소비지출 변화에 대해 타당성있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가계 소비지출(소비비목) 등의 주요 변수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조사자료라 하더라도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해석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2) 은퇴 전후 소비지출양식 변화

은퇴라는 주제가 관심을 받기 전까지는 은퇴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소비지출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드물었지만, 고령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이나, 노인소비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노령 가계의 소비지출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여윤경(2002)은 65세를 은퇴연령으로 설정하고, 은퇴자가계와 비은퇴자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비중을 비교하였다. 은퇴자가계는 비은퇴자가계에 비해 더 적게 지출하며, 비목별로 살펴볼 경우 은퇴자가계는 식료품비(78.5%), 피복·신발비(69.0%), 교육비(59.5%), 기타소비지출(71.3%), 교통·통신비(79.4%) 등의 소비비목에 대한 지출액이 적고, 주거비(110.8%), 보건의료비(105.8%)는 더 많이 지출하였다. 석재은(2003)은 소득수준의 감소, 부양할 가구원의 감소, 생애주기 상 연령에 따른 욕구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양식을 비교하였는데,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적은 소비비목은 교육비(0%), 교통통신비(63%), 식료품비(82%), 교양오락비(84%) 등이었고, 노령계층의 보건의료비는 근로

연령계층의 215%로 두 배 이상 지출되었다. 최홍철·최현자(2014)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중년기, 은퇴기¹⁾ 가계를 구분하였는데, 은퇴기 가계는 중년기 가계에 비해 의류·신발, 교통통신비, 오락문화, 교육비, 음식숙박비 등의 지출이 적고, 보건의료비를 포함해 식료품비, 주류 및 담배, 주거수도광열비, 가정용품비 등의 지출이 많았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양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석상훈(2010)은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은퇴한 50세 이상의 은퇴자가 있는 세대의 은퇴 전후 소비를 비교하였다. 은퇴 전후 소비비목 별 지출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은퇴 후 주거/광열수도비와 피복비 지출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유경원(2012) 역시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은퇴 전에 비해 식비와 주거광열비, 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고 은퇴 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소비비목은 보건의료비와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등 이었다.

대체로 은퇴 후에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은퇴 전에 비해 지출액이 감소하는 소비비목은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²⁾ 등이었다. 은퇴 전후로 자녀가 독립하는 등 가족 생애주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점이 소비지출양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양식을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마다 분석에 활용한 소비비목이 통일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은퇴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동일 가계를 추적조사한 패널자료에서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 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분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비목의 지출규모와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은퇴생활에 접어든 가계의 니즈를 보다 현실성있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1년의 소비지출규모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의 특성과 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은퇴 전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연구문제 2는 가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통제된 상황에서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1] 은퇴 전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2]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 가구주 연령이 40-59세인 가계를 중년기 가계, 60세 이상인 경우 은퇴기 가계로 구분하였다.
2)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따라 소비비목의 구분이 상이하고 비교에 활용한 비목의 수가 상이하였으며, 참고한 선행연구들 중 과반 이상에서 공통된 결과를 보인 소비비목에 대해 서술하였다.

[연구문제 2] 은퇴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1] 은퇴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2] 은퇴는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분석자료 및 변수정의

3.2.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18차(2000-2015년)자료³⁾를 활용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라 데이터셋을 상이하게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은퇴 시점 전후 가계소비지출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은퇴자 가계를 추출한 후, 해당 가계의 은퇴연도를 기준으로 1년 전, 후의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를 선별하였다. 연구문제 2는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여부를 파악⁴⁾할 수 있는 은퇴자, 비은퇴자 가계를 모두 포함하였다.

3.2.2 변수의 측정

1) 은퇴

은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석대상과 연구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권문일(1996)에 따르면 은퇴에 대한 정의는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거나(Parnes et al., 1975), 경제활동 참가여부,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두 지표 중 하나가 일정 수준이하로 급격히 축소되는 시점을 은퇴시기로 정의하는 방법(윤재호·김현정, 2011)⁵⁾,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을 은퇴로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공적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최초로 수급하는 시점을 은퇴시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계가 은퇴여부를 주관적 평가에 의해 직접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은퇴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은퇴 정의를 준용하였으며, 가구주가 4차 및 6차, 18차 부가조사의 은퇴 여부를 묻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하고, 은퇴연도를 기재하였으며 은퇴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었다는 경우를 은퇴자 가계로 간주하였다.⁶⁾

3)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정식으로 공개한 자료는 1-17차(1998-2014)자료이나, 2015년에 조사된 18차 부가조사에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은퇴 가구주 관련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연구용으로 사전 배포된 1-1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4) 4차, 6차, 18차 부가조사의 은퇴여부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만 은퇴여부 파악이 가능하다.

5) 해당 연구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최초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조사기간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은퇴로 정의하였다.

6) 본 연구에서의 관심을 두는 은퇴는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여러 사유로 짧지 않은 기간 일을 하지 않아 은퇴라고 응답하였으나 경제 여건 등 사정에 따라 이후 추가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은퇴 당시 가구주 연령을 50세 이상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2) 가계 경제적 특성

(1)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가구 전체의 세후 연소득을 의미하며 분가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 및 일시적 비동거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 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소득의 연 단위 합계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2) 소비지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4-18차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측정된 10개 소비비목의 지출액과 월평균 생활비를 가계소비지출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조사년 도 전년도의 월평균 생활비 및 소비비목별 지출액을 측정하므로 4-18차 소비지출자료는 2000 년에서 2014년의 가계소비지출을 보여준다. 필요에 따라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해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지출액 차이를 통제하였고, 소비지출의 실질가치 비교를 위해 연도별 소비자물가 지수(2014년 100기준)를 이용하여 소비지출액을 조정하였다.

(3) 자산과 부채

자산 변수로는 금융자산과 주택관련자산을 포함하고, 부채 변수는 부채보유액을 활용하였 다. 금융자산은 예·적금(CMA포함),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 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기타 등 6개 항목이며 이들 6개 항목 보유액을 합산하였다. 한 국노동패널에서는 거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그 시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액수를 조사 하고 있어 이를 결합해 주택관련자산 변수를 생성, 활용하였다.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 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받은 것(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 야 할 계,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보유액을 합산하여 부채보유액 변수를 생성하였다.

3.3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은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특정 기간 내 은 퇴한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을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가계 특성 및 은퇴특성에 따라 집단을 나눈 뒤, 집단 별로 은퇴 전후 소비지출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는 은퇴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들이 동 일할 때 은퇴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은퇴 여부 더미변 수를 포함한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G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을 통해 자료가 분석모형의 기본 가정을 위배 하는 경우 적절한 처치를 포함해 수정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STATA 14.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 3-18차 본조 사 및 제 4차와 6차, 18차 부가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상이한 데이터세트를 활용 하였기에 분석결과 서술에 앞서 각 절에 자료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

4.1.1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은퇴 전과 후의 시기가 모두 3차(2000년)에서 17차(2014년)조사⁷⁾ 범위에 위치하여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은퇴자 가계(2001년에서 2013년에 은퇴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384가구가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은퇴자 가계는 은퇴시점이 다양하며, 패널조사 진입 및 탈퇴시점, 응답지속기간도 상이하다.

<표4-1>은 은퇴자 가계의 은퇴시점의 가구특성을 보여준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계의 은퇴 당시 가구주 평균 연령은 62.1세이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은퇴한 가계가 3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은퇴자 가계의 남성 가구주 비율이 78.7%이며,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56.8%로 은퇴자 가계의 가구주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69.8%로 대다수이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19.8%였다. 은퇴자 가계의 은퇴 당시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이었으며 은퇴 당시 거주형태는 자가 74.2%로 가장 높았다.

<표 4-1> 은퇴자 가계의 은퇴 시점의 가구 특성 (N=384, 단위:명)

		빈도 (%)		빈도 (%)		
가구주 은퇴 연령	평균 은퇴 연령(세)	62.1		평균	2.6	
	50세 이상~55세 미만	30	(7.8)	1명	64 (16.7)	
	55세 이상~60세 미만	95	(24.7)	2명	130 (33.9)	
	60세 이상~65세 미만	143	(37.2)	3명	103 (26.8)	
	65세 이상~70세 미만	79	(20.6)	4명	65 (16.9)	
	70세 이상	37	(9.6)	5명 이상	22 (5.7)	
가구주 성별	남자	302	(78.7)	배우자 유무	미혼	4 (1.0)
	여자	82	(21.4)		기혼(유배우자)	268 (69.8)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218	(56.8)		별거 및 이혼	36 (9.4)
	고졸	114	(29.7)	배우자 사별	76 (19.8)	
	전문대졸	15	(3.9)	거주 형태	자가	285 (74.2)
	대졸	32	(8.3)		전세	62 (16.2)
	석사이상	5	(1.3)		월세	30 (7.8)
			기타		7 (1.8)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 해 월평균 소득은 약 350.2만원이며, 그 중 근로소득이 248.8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71.1%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부동산소득이 15.2% 이었다. 은퇴 다음 해에 근로소득의 비중은 56.5%로 크게 감소하고 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의 비중이 늘어 소득원이 분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은퇴자 가계의 은퇴 직전 해 금융자산평균 보유액은 2,764.3만원이며 금융자산의 82.4%가

7) 조사자료의 특성 상 4차(2001년)조사는 2000년의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을 측정하고 있고, 2000년 당시의 가계의 전반적인 특성은 3차 조사에 측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전반적인 특성이 측정된 해를 기준으로 사전에 자료를 병합하였고, 이에 따라 4차 조사에서 측정된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은 3차 자료에 반영되었다.

은행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자산에 치중된 자산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151가구로, 전체의 39.3%이다. 금융기관부채 비중이 62.4%로 가장 많았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부채의 비중이 30.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은퇴자 가계의 소득 중 부동산 소득 비중이 다소 높고, 임대보증금 등 부채 비중이 높음을 통해 은퇴자 가계가 부동산 임대를 통해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은퇴 전 해에 비해 은퇴 다음 해에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 부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부채 총액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4-2>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후 1년 경제적 특성⁸⁾ (N=384, 단위:만원)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평균	(S.D)	%	평균	(S.D)	%
소득	월평균 소득	350.2	(583.4)	100.0	242.5	(222.0)	100.0
	근로소득	248.8	(247.2)	71.1	137.0	(178.9)	56.5
	금융소득	6.9	(40.5)	2.0	6.1	(23.9)	2.5
	부동산소득	53.2	(507.7)	15.2	23.0	(100.8)	9.5
	사회보험소득	14.9	(39.6)	4.3	44.7	(86.0)	18.4
	이전소득	15.6	(29.2)	4.5	27.0	(43.6)	11.1
	기타소득	10.8	(88.0)	3.1	4.6	(40.6)	1.9
금융 자산	금융자산 총액(보유가계)	4162.7	(7139.8)		5534.9	(10343.0)	
		n=255			n=243		
	금융자산 총액(비보유가계 포함)	2764.3	(6138.6)	100.0	3502.6	(8644.8)	100.0
	은행예금	2278.5	(5794.6)	82.4	2915.5	(7421.3)	83.2
	주식, 채권, 신탁	131.9	(1201.1)	4.8	215.5	(2061.9)	6.2
	저축성 보험	194.6	(806.0)	7.0	187.1	(1013.4)	5.3
	아직 타지 않은 계	20.2	(199.5)	0.7	0.2	(3.6)	0.0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77.3	(1273.5)	2.8	176.4	(2593.9)	5.0
기타 금융자산	61.8	(797.6)	2.2	7.8	(131.8)	0.2	
부채	부채 총액(보유가계)	6649.2	(7119.7)		7148.4	(8257.5)	
		n=151			n=152		
	부채 총액(비보유가계 포함)	2536.0	(5459.2)	100.0	2829.6	(6255.8)	100.0
	금융기관부채	1581.4	(4463.4)	62.4	1705.3	(4903.5)	60.3
	비금융기관부채	12.0	(160.6)	0.5	9.5	(145.6)	0.3
	개인적으로 빌린 돈	150.4	(964.9)	5.9	81.9	(638.7)	2.9
	전세금, 임대보증금받은 것	781.8	(2503.5)	30.8	1032.9	(3204.6)	36.5
	미리 타고 앞으로 부을 계	10.4	(140.3)	0.4	0.0	(0.0)	0.0
기타 부채	0.0	(0.0)	0.00	0.0	(0.0)	0.0	

<표4-3>을 보면 384가구 중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를 한다.고 응답한 부분 은퇴 가계는 49가구로 전체의 12.8%이며, 은퇴 이유로는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가 39.1%, ‘정년퇴직’ 이 25.3%를 차지했다. 은퇴자 가계는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한 경우보다 직장이나 일자리 상황의 악화, 건강 악화로 불가피하게 은퇴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4-3> 은퇴자 가계의 은퇴관련 특성 (N=384, 단위:명)

	빈도	%
은퇴	384	(100.0)
완전 은퇴	335	(87.2)
부분 은퇴(소일거리하며 지냄)	49	(12.8)

8) 경제적 특성인 소득, 소비, 금융자산, 부채는 각 가계 별 은퇴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2014년 기준 100)를 이용해 변환하였다.

은퇴 이유	384	(100.0)
정년퇴직	97	(25.3)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9	(2.3)
본인의 건강 악화	150	(39.1)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8	(2.1)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	(0.5)
가족 건강 악화 및 손자녀 양육 등의 집안일	9	(2.3)
본인 및 배우자 수입에 여유가 있어서	6	(1.6)
해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	50	(13.0)
고용주나 일로부터의 압박 및 스트레스	25	(6.5)
기타	28	(7.3)

4.1.2 은퇴 전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 변화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 해와 은퇴 다음 해의 소비지출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퇴자 가계의 은퇴 전 해의 월평균 생활비는 179.5만원, 은퇴 다음 해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6만원으로 은퇴 전 해에 비해 평균 15.9만원(은퇴 전 소비지출 대비 8.9%) 줄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구원 수는 가계의 소비지출규모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이를 통제한 후⁹⁾ 소비지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은퇴 직전 해 균등화소비지출액은 106.8만원이었으나 은퇴 후 100.5만원으로 약 6.3만원(5.9%) 줄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은퇴 전후 가구원 수의 변화를 통제하더라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가구원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 감소율과 통제한 후의 감소율 사이에 약3.0%p의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이 가구원 수 감소에 의해 소비지출액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4>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 변화 (N=384, 만원)

N=384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평균	(S.D)	평균	(S.D)			
월 소비지출	179.5	(116.2)	163.6	(107.4)	-15.9	-8.9	3.914***
월 소비지출 (가구원수 균등화 후)	106.8	(59.6)	100.5	(55.3)	-6.3	-5.9	2.817**

*p < .05, **p < .01, ***p < .001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중 1998-2003년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전승훈(2005)에서는 은퇴 후 소비지출이 오히려 증가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 은퇴 후 소비지출이 감소한 결과가 나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2005-2009년)를 이용한 석상훈(2010)의 연구는 은퇴자 가계의 균등소비지출이 은퇴 전에 비해 13.3%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하여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월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유경원(2012)이 동일시기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퇴 전후 총 소비지출과 경상소비지출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고 자산 1분위 가계의 은퇴 후 지출감소 만이 유의하였다.

9) 전체 384가구 중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가구원수가 감소한 가계는 69가구(18.0%)로 78.7%는 가구원 수 변화가 없었고 13가구에서만 은퇴 후 가구원수가 증가하였다.

4.1.3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비중 변화

1)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

은퇴 전후 소비비목 별 지출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과 같다. 은퇴하기 전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순위는 식비, 주거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교육비가 상위 5위를 차지하였으나 은퇴 다음 해에 이 순서는 식비, 주거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보건의료비로 바뀌었다. 교육비가 줄고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은퇴 후 소비지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소비비목은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통신비이다. 그 중 감소율이 가장 큰 것은 교육비로 은퇴 전에 비해 39% 감소하여 3.9만원 줄었고, 차량유지비와 외식비, 통신비지출은 은퇴 이전 대비 각각 14.6%(2.4만원), 14.1%(0.9만원), 13.5%(1.5만원) 감소하였다. 식비는 은퇴 전 지출에 비해 2.7만원 줄어 약 7.0% 감소하였다. 한편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지출액이 늘어난 비목은 보건의료비였으나, 약 0.9만원 증가해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4-5>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¹⁰⁾ 변화 (단위:만원)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	t값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식비	383	38.6 (22.8)	35.9 (19.8)	-2.7	-7.0%	2.621**		
외식비	383	6.4 (10.2)	5.5 (7.6)	-0.9	-14.1%	2.089*		
교육비	383	10.0 (27.6)	6.0 (24.0)	-3.9	-39.0%	2.618**		
차량유지비	383	16.5 (19.4)	14.0 (18.1)	-2.4	-14.6%	3.216**		
주거비	383	18.3 (0.6)	17.8 (0.6)	-0.4	-2.2%	0.618		
보건의료비	383	8.4 (14.1)	9.3 (17.2)	0.9	10.7%	-0.866		
통신비	384	11.1 (9.0)	9.7 (7.3)	-1.5	-13.5%	3.741***		
경조사비	383	8.8 (9.8)	7.8 (11.7)	-0.9	-10.2%	1.447		
교양오락비	384	5.0 (7.2)	5.0 (8.6)	-0.0	0.00%	0.117		
내구재구입비	383	2.6 (19.2)	1.5 (4.8)	-1.1	-42.3%	1.119		

*p < .05, **p < .01, ***p < .001

2)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총 소비지출에서 각 소비비목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가계의 필요와 욕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표 4-6>을 보면, 은퇴 이전 해 가계의 소비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25.4%)이며, 주거비(12.9%)와 차량유지비(7.2%), 통신비(6.4%), 보건의료비(6.0%)가 뒤를 이었다. 은퇴 다음 해에도 역시 식비(26.0%), 주거비(13.5%)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다음이 보건의료비(6.7%), 차량유지비(6.6%), 통신비(6.1%)로 이어져 은퇴 전 해에 비해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높아졌다.

은퇴 전에 비해 은퇴 후 지출비중이 유의하게 변화한 비목은 교육비 뿐이었다.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수치와 순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식비, 주거비 등

10) 해당 연도의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지 않은 원 지출액이다.

필수지출과 은퇴자 가계의 특수적인 필요가 반영된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의 증가 폭이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비목 지출비중의 감소 폭보다 컸다.

<표4-6>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변화 (단위: %)

	N	은퇴 전 해		은퇴 다음 해		△	t값
		평균	(S.D)	평균	(S.D)		
식비 비중	383	25.4	(12.6)	26.0	(12.4)	0.6	-0.817
외식비 비중	383	2.9	(4.1)	2.9	(3.8)	0.0	-0.142
교육비 비중	383	3.4	(8.7)	2.1	(7.2)	-1.4	3.023**
차량유지비 비중	383	7.2	(8.5)	6.6	(8.3)	-0.6	1.683
주거비 비중	383	12.9	(9.2)	13.5	(8.5)	0.6	-1.232
보건의료비 비중	384	6.0	(8.2)	6.7	(9.5)	0.7	-1.231
통신비 비중	384	6.4	(3.9)	6.1	(3.1)	-0.4	1.639
경조사비 비중	383	4.9	(5.1)	4.6	(2.0)	-0.3	1.049
교양오락비 비중	384	2.8	(2.9)	2.8	(2.9)	-0.0	0.143
내구재구입비비중	383	0.9	(3.2)	0.7	(2.0)	-0.2	1.256

*p < .05, **p < .01, ***p < .001

앞서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와 함께 살펴볼 때 교육비와 차량유지비, 통신비는 지출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가계가 은퇴를 전후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관련 지출로 볼 수 있는 차량유지비의 감소는 일자리에서 물러난 가계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비, 외식비, 주거비의 경우 지출액이 줄었으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가계의 소비지출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지출양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식비와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은퇴자 가계의 필수적 욕구에 기반한 소비비목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4.2 은퇴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4.2.1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18차 가구 및 개인 본조사와 은퇴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는 4, 6, 18차 부가조사에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주 가계의 자료이다. 본 분석의 주된 목적이 은퇴 여부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가계를 선별하였다.

구축된 패널자료는 불균형패널로 총 1,663 가구의 16,790개 관측치가 분석되었다. 가구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15개 차수에 응답하였으며 15개 차수 중 대표적으로 3차(2000년), 17차(2014년)와 전체 관측치의 평균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7>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단위: 명, 만원)

		3차(2000년)		17차(2014년)		전체	
		N=1,005		N=1,049		N=16,790	
		n	(%)	n	(%)	n	(%)
가구주 성별	남자	747	(74.3)	815	(77.7)	12,430	(77.7)
	여자	258	(25.7)	234	(22.3)	4,360	(22.3)
가구주 연령(세)		59.2		63.6		63.6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659	(65.6)	581	(55.4)	10,521	(62.7)
	고졸	237	(23.6)	340	(32.4)	4,378	(26.1)
	전문대졸	21	(2.1)	40	(3.8)	459	(2.7)
	대졸	76	(7.6)	71	(6.8)	1,236	(7.4)
	석사이상	12	(1.2)	17	(1.6)	196	(1.3)
혼인 상태	미혼	4	(0.4)	20	(1.9)	185	(1.1)
	기혼(유배우자)	701	(69.8)	730	(69.6)	11,198	(66.7)
	별거	16	(1.6)	17	(1.6)	207	(1.2)
	이혼	37	(3.7)	119	(11.3)	1,156	(6.9)
	사별	247	(24.6)	163	(15.5)	4,044	(24.1)
평균 가구원 수(명)		3.3		2.4		2.7	
거주 형태	자가	755	(75.1)	753	(71.8)	12,372	(73.7)
	전세	164	(16.3)	121	(11.5)	2,243	(13.4)
	월세	59	(5.9)	137	(13.1)	1,495	(8.9)
	기타	27	(2.7)	38	(3.6)	680	(4.1)
은퇴 여부	비은퇴	731	(72.7)	702	(66.9)	11,256	(67.0)
	은퇴	274	(27.3)	347	(33.1)	5,534	(33.0)
		평균(sd)	중앙값	평균(sd)	중앙값	평균(sd)	중앙값
월평균 가계소득		244.05 (285.6)	174.0	300.82 (306.4)	223.5	276.60 (348.1)	198.3
금융자산		1454.08 (4321.9)	200	2963.19 (7218.2)	650	2153.03 (8200.7)	250
부채규모		1817.64 (4551.3)	0	3397.99 (9947.4)	0	2566.11 (8516.8)	0

4.2.2 은퇴가 가계 총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구주의 은퇴여부 더미변수를 포함한 가계지출함수를 구성한 후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GLS, FE(고정효과)모형, RE(확률효과)모형을 차례로 분석한 뒤 보다 적합한 실증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오차항 $e_{i,t}$ 에 자기상관이 존재¹¹⁾하고, 오차항의 동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음¹²⁾에 따라 패널GLS 및 FE, RE 모형 추정과정에서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처리한 분석을 실시하였다.¹³⁾ 분석 실시 후 오차항에 대한 검증 결과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OLS보다 패널개체의 특성 u_i 를 고려한 FE모형이나 RE모형의 활용이 보다 적합하였다. 또한 FE와 RE모형의 비교를 위해 Hausm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오차항 u_i 과 설명변수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과정에서 u_i 가 제거됨으로써 $cov(x_{i,t}, u_i) \neq 0$ 일 때에도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FE모형의 활용이 적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패널

11) Wooldridge 검증을 실시함

12) 모든 i에 대해 $var(u_i) = \sigma_u^2$ 가 기각됨.

13) vce(cluster)옵션을 활용함. Hoechle(2007)의. p.4 참조

개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FE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FE모형에서 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개체 내 설명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만을 설명하며, 패널GLS와 RE모형의 추정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개체 간, 개체 측정시점 간 설명변수 값의 변화(차이)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한 FE모형에서의 $R^2(\text{within})$ 는 0.263로, 측정시점에 따른 가계 내 특성의 변동이 종속변수인 총 소비지출을 설명하는 정도가 26.3% 임을 의미한다.¹⁴⁾ 다중회귀에서 활용하는 표준화된 효과크기(standardized effect size)인 f^2 값으로 환산했을 때, $0.358(f^2 = R^2/(1-R^2))$ 으로 용인할 만큼 큰 효과크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표4-8> 가계 총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 ln 총 소비지출	패널GLS ¹⁶⁾		RE		F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007	0.007	-0.024	0.014	-0.039*	0.020	
가구주성별	-0.081***	0.012	-0.132***	0.030			
가구주연령	-0.012**	0.004	-0.002	0.007	0.015	0.009	
가구주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원수	0.125***	0.003	0.133***	0.006	0.144***	0.007	
가구주	고졸	0.159***	0.007	0.199***	0.016	0.136	0.108
교육수준	전문대졸	0.294***	0.017	0.353***	0.033	0.149	0.118
(기준: 대졸)	대졸	0.346***	0.012	0.406***	0.031	0.295*	0.121
중졸이하)	석사이상	0.483***	0.022	0.520***	0.050	0.123	0.151
거주형태	전세	-0.042***	0.008	-0.013	0.013	0.010	0.016
(기준: 월세)	월세	-0.043***	0.009	-0.025	0.016	-0.038	0.022
자가)	기타	-0.085***	0.013	-0.066**	0.023	-0.029	0.025
혼인상태	기혼 유배우	0.195***	0.026	0.160**	0.065	-0.321	0.175
(기준: 별거)	별거	0.100**	0.032	0.109	0.074	-0.352	0.180
미혼)	이혼	0.067*	0.026	0.063	0.068	-0.440*	0.180
	사별	0.086**	0.027	0.070	0.068	-0.336	0.181
ln 가계소득		0.314***	0.004	0.268***	0.009	0.209***	0.009
ln 금융자산금액		0.008***	0.001	0.008***	0.001	0.003**	0.001
ln 부채금액		0.007***	0.001	0.007***	0.001	0.004***	0.001
상수		3.533***	0.122	3.311***	0.240	3.147***	0.334
R-square	-		0.739		0.263		
H ₀ : 모든 $u_i=0$ 에 대한 F값 (Pooled OLS-FE)					6.76***		
H ₀ : $\text{var}(u_i)=0$ 에 대한 χ^2 검증 (Pooled OLS-RE)					5924.77***		
Hausman검증 (H ₀ : $\text{cov}(x_{it}, u_i) = 0$)					2716.99***		

*p < .05, **p < .01, ***p < .001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주가 은퇴하게 되면, 은

14) RE모형의 설명력이 73.86%인데 반해 FE모형의 설명력이 작은 이유는 RE모형의 설명력이 개체 간 차이와 개체 내 변동을 모두 반영하는데 반해 FE모형은 개체 내 변동에 의한 설명력만 포착하기 때문이다.

15) 남상건(2015)에 따르면 효과크기란 비교하려는 집단들 사이의 차이 혹은 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인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효과크기 f^2 을 활용한다. 이 값이 0.02이면 small, 0.15는 medium, 0.35이면 large의 효과크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6) 추정과정에서 관측치 43개가 탈락됨에 따라 관측치의 수는 16,747이며 개체수는 1,620임

퇴 전에 비해 소비지출이 3.9% 감소하였다. RE모형에서는 가구주의 은퇴 여부가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¹⁷⁾ 이는 은퇴자가계와 비은퇴자 가계의 소비지출 차이보다 가구주가 은퇴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계 내의 소비지출 변화가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구주의 은퇴 변수는 다른 변수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은퇴에 따른 가계의 심리적 변화나 여가시간의 확대 및 라이프스타일 전환에 따른 소비니즈 변화 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를 야기한다. 한편 가구주의 은퇴 여부 외에 가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계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액규모가 있다. 가구 내에서 가구원이 한 명이 감소하면 가계 소비지출이 약 14.4% 감소하며, 조사기간 동안 가구주 학력이 변동된 가계¹⁸⁾ 중 가구주 최종학력이 대졸이 되면서 중졸이하 가계 대비 소비지출이 29.5% 많았다. 이혼한 가계의 가계 소비지출은 미혼가계 대비 44% 적었다.¹⁹⁾ 이들 요인과 비교했을 때 은퇴 여부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해외 선행연구들의 경우 활용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은퇴 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5.7%(Hurd and Rohwedder, 2008), 7%(비자발적 은퇴시; Chiang, 2012), 16%(Laitner and Silverman, 2005)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분석된 바 있다.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국내 연구들은 은퇴가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은퇴 후 소비지출이 미미하게나마 증가(전승훈, 2005)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으로는 은퇴로 인해 가계의 소비지출이 약 3.9% 감소하여 해외 연구에서 보고된 수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우리나라 가계 역시 은퇴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연구들의 결과와 다른 것은 은퇴의 정의²⁰⁾ 및 연구에 활용된 패널자료의 조사시기²¹⁾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2.3 은퇴가 가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에 미치는 영향

1)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가구주의 은퇴는 일부 소비비목의 지출규모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비목별로 앞서 총 소비지출에 대한 지출함수와 동일한 모형을 구성하고 앞선 과정의 분석을 거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내구재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비목에 있어 RE모형보다 FE모형이 적합하였고,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7) 유의수준 0.087로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18) 21가구의 가구주 최종학력이 변동되었으며 이중 대졸로 변동된 경우는 5가구이다.

19) FE(고정효과) 추정의 경우 개체(가구) 내에서 변수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혼인상태 및 최종학력의 변화가 없는 경우) 계수 추정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해당 계수값은 일부 변화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추정임을 유의해야한다.

20) 윤재호·김현정(2010) 역시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였으나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하여, 직접 응답에 따라 은퇴를 구분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21) 안종범·전승훈(2003)은 한국노동패널 1-4차 자료를, 전승훈(2005)은 1-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와 해당 연구들에 포함된 은퇴자 가계의 은퇴연도에 차이가 있으며, 안종범·전승훈(2003)이 언급하였듯 조사시기의 특수성(IMF이후 경제 회복기)이 연구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표4-9>는 은퇴여부를 포함해 가계의 소비비목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함한 가계 지출함수의 추정결과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구주가 은퇴하면 가계의 통신비는 9.3%, 교양오락비는 9.2% 감소한다. 앞서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감소했던 소비비목은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통신비였는데, 은퇴 외에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은퇴 후 지출이 감소한 비목은 통신비가 유일하다.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의 경우 가구주의 은퇴 자체보다는 은퇴와 더불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소득 및 가구원 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은퇴와 더불어 노동활동이 줄면서 노동관련 비용 중 하나인 통신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 시간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교양오락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은퇴 후 여가가 경제활동기에 누리던 고비용의 여가에서 저비용의 정적인 여가로 바뀌기 때문일 수 있다.

보건의료비와 경조사비를 제외한 소비비목들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출액이 증가하고, 모든 소비비목은 소득의 증가와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가계소득증가에 따른 지출 변화율은 비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비목은 내구재구입비(0.27%)와 외식비(0.19%)이며 교육비(0.07%)가 가장 소득탄력성이 낮았다. 한편 외식비와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는 연령 증가에 따라 역U자형을 보였으며, 보건의료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U자형을 보였다. 거주형태가 월세로 전환되면 보건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가 유의하게 줄고, 주거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월세 부담의 증가가 필수지출이 아닌 선택재적 성격을 가진 지출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4-9>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비 / FE		외식비 / FE		교육비/ FE		차량유지비/ FE		주거비/ F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011	0.023	-0.058	0.042	-0.039	0.190	-0.080	0.041	0.010	0.026	
가구주연령	-0.015	0.011	0.058*	0.024	-0.023	0.050	0.037	0.024	0.029*	0.012	
가구주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원수	0.102***	0.008	0.070***	0.016	0.082*	0.041	0.049***	0.012	0.037***	0.009	
가구주 교육수준	0.025	0.036	0.214**	0.074	0.063	0.098	0.031	0.049	0.014	0.033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020	0.018	-0.041	0.048	0.099	0.071	-0.027	0.036	0.015	0.024
	월세	-0.036	0.026	-0.064	0.060	0.091	0.108	0.014	0.043	0.296***	0.038
	기타	-0.009	0.030	-0.144	0.079	0.052	0.186	-0.072	0.064	0.021	0.037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유배우	0.070	0.083	-0.758***	0.132	-0.025	0.118	-0.337***	0.095	-0.426***	0.122
	별거	-0.086	0.097	-0.613**	0.185	0.137	0.220	-0.436**	0.147	-0.366**	0.136
	이혼	-0.170	0.094	-0.800***	0.187	0.210	0.212	-0.378**	0.130	-0.428**	0.141
사별	-0.087	0.093	-0.546**	0.181	0.410*	0.204	-0.284	0.145	-0.428**	0.130	
ln가계소득	0.130***	0.008	0.186***	0.019	0.068*	0.033	0.142***	0.015	0.103***	0.008	
ln금융자산금액	0.002	0.001	0.006*	0.003	-0.001	0.005	0.003	0.002	0.001	0.001	
ln부채금액	0.001	0.001	0.000	0.003	-0.002	0.005	0.005*	0.002	0.003	0.001	
상수	3.333***	0.355	-0.521	0.734	3.939**	1.388	1.514*	0.719	1.394***	0.391	
R-square	0.1244		0.0493		0.0129		0.0525		0.0387		
$f^{2(22)}$	0.14		0.05		0.01		0.06		0.04		

*p < .05, **p < .01, ***p < .001

22) 남상건(2015)에 따르면 다중회귀분석에서의 효과크기 f^2 는 0.02이면 small, 0.15는 medium, 0.35이면 large의 효과크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 내구재구입비에 대한 분석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있으며, 외식비와 교통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에 대한 분석은 낮은 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표4-9>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보건의료비/ FE		통신비/ FE		경조사비/ FE		교양오락비/ FE		내구재구입비/ R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081	0.052	-0.093**	0.029	-0.053	0.037	-0.092*	0.045	0.119*	0.049	
가구주성별									0.090	0.075	
가구주연령	-0.086***	0.024	-0.010	0.013	0.142***	0.019	0.149***	0.020	-0.025	0.026	
가구주 연령 제공	0.001**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가구원수	0.012	0.015	0.217***	0.010	0.005	0.012	0.062***	0.014	0.089***	0.018	
가구주 교육수준	0.016	0.154	0.087	0.057	-0.034	0.081	0.251**	0.088	0.057*	0.023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086*	0.042	0.004	0.023	-0.002	0.035	-0.034	0.038	0.040	0.057
	월세	-0.205***	0.048	-0.078*	0.031	-0.101*	0.045	-0.146**	0.043	-0.087	0.062
	기타	-0.062	0.063	-0.053	0.035	-0.030	0.064	-0.038	0.048	-0.269**	0.090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유배우	-0.519***	0.101	-0.490	0.487	-0.540	0.502	-0.105	0.182	0.248	0.163
	별거	-0.766***	0.159	-0.540	0.477	-0.563	0.515	0.064	0.200	0.507*	0.204
	이혼	-0.728***	0.166	-0.664	0.487	-0.632	0.511	-0.265	0.203	-0.009	0.167
	사별	-1.238***	0.140	-0.386	0.488	-0.473	0.507	-0.156	0.194	0.142	0.167
ln가계소득	0.111***	0.014	0.162***	0.010	0.165***	0.013	0.130***	0.013	0.266***	0.027	
ln금융자산금액	0.006*	0.003	0.005**	0.001	0.007**	0.002	0.005	0.002	0.014**	0.005	
ln부채금액	-0.000	0.003	0.006***	0.002	0.001	0.002	-0.002	0.003	-0.002	0.004	
상수	4.500***	0.790	1.647*	0.636	-1.362	0.766	-5.705***	0.683	0.501	0.852	
R-square	0.0197		0.2036		0.1254		0.0422		0.1896		
f ²	0.02		0.26		0.14		0.04		0.23		

*p < .05, **p < .01, ***p < .001

2) 소비비목별 지출비중

<표 4-10>를 통해 살펴보면, 가구주의 은퇴는 통신비를 제외한 소비비목의 지출비중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변화에 비해 지출비중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각 소비비목의 지출비중이 총 소비지출규모의 변화와 다른 소비비목 지출액 증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구가 은퇴로 인해 유의한 비중 변화가 있는 비목은 통신비가 유일하다. 은퇴 후 가계의 통신비 지출비중은 약 0.78%p 감소하나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의 변화는 은퇴 여부보다는 다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인 가구주 연령이다. 외식비와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의 형태를 띠었고, 보건의료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에 따라 U자 형태를 보였다. 주거비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또한 가계의 혼인상태 변화는 외식비, 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내구재구입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거주형태가 월세인 경우 주거비 지출비중이 높아지고 외식비, 차량유지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비중이 감소한다. 앞서 가계 월소득은 모든 소비비목의 지출액을 증가시켰으나,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식비와 교육비, 주거비의 지출비중은 낮아지고,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의 비중이 증가한다.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비, 주거비 지출 비중이 감소한다는 앵겔법칙 및 슈바베법칙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중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은퇴로 인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은퇴가 중요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소비지출양식 자체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변동되기보다 서서히 변화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4-10>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비/ FE		외식비/ FE		교육비/ FE		차량유지비/ FE		주거비/ F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959	0.621	-0.407	0.237	1.232	0.631	-0.923	0.537	-0.201	
가구주연령	0.494	0.304	0.590***	0.098	-4.066***	0.316	1.628***	0.210	0.617**	
가구주 연령 제공	-0.005*	0.002	-0.003***	0.001	0.028***	0.002	-0.012***	0.002	-0.003	
가구원수	-0.841***	0.197	-0.141	0.074	3.060***	0.257	0.582**	0.177	-1.439***	
가구주 교육수준	-0.987	0.796	0.239	0.342	1.013	1.443	1.203	1.405	-0.711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563	0.569	-0.371	0.214	0.150	0.580	0.125	0.400	0.647
	월세	-1.081	0.755	-0.727**	0.241	0.136	0.676	-1.576**	0.486	7.482***
	기타	1.199	0.905	-0.178	0.256	-0.429	0.835	-0.169	0.604	0.270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유배우	2.110	3.262	-5.031***	1.436	13.480***	1.266	-0.807	2.334	-5.419***
	별거	0.819	3.826	-3.660*	1.687	11.906***	2.278	1.175	2.696	-3.015*
	이혼	-2.269	3.609	-4.613**	1.654	16.579***	2.232	0.916	2.703	-1.944
사별	0.391	3.592	-2.530	1.579	15.712***	1.409	1.476	2.519	-3.287**	
ln가계소득	-1.271***	0.186	0.626***	0.068	-0.608***	0.147	1.321***	0.145	-1.144***	
ln금융자산금액	-0.056*	0.033	0.047***	0.013	-0.121***	0.031	0.102***	0.026	-0.037	
ln부채금액	-0.091**	0.034	-0.001	0.015	0.067	0.037	0.035	0.026	0.005	
상수	32.489**	9.692	-18.880***	3.435	127.812***	10.787	-55.957***	7.548	6.678	
R-square	0.0131		0.0407		0.1424		0.0290		0.0797	
f ²⁽²³⁾	0.01		0.04		0.17		0.03		0.09	

*p < .05, **p < .01, ***p < .001

23) 효과크기 측면에서 교육비 비중의 경우 설명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중간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비목별 비중의 경우 효과크기가 낮은 수준이었다.

<표4-10>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보건의료비/ FE		통신비/ FE		경조사비/ FE		교양오락비/ FE		내구재구입비/ R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은퇴여부	0.623	0.532	-0.779**	0.267	-0.354	0.306	-0.142	0.211	-0.004	0.082	
가구주성별									0.256*	0.101	
가구주연령	-1.050***	0.270	-0.004	0.108	1.264***	0.128	0.610***	0.089	0.001	0.039	
가구주 연령 제곱	0.010***	0.002	-0.000	0.001	-0.012***	0.001	-0.003***	0.001	-0.000	0.000	
가구원수	-0.880***	0.166	0.719***	0.077	-0.789***	0.097	-0.164**	0.060	-0.111**	0.036	
가구주 교육수준	-0.657	0.479	0.188	0.359	-1.223	0.964	0.443	0.563	-0.041	0.041	
거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0.853*	0.375	0.113	0.215	0.016	0.231	-0.302	0.167	-0.120	0.087
	월세	-2.164***	0.525	-0.628*	0.287	-0.533*	0.268	-0.592**	0.181	-0.239**	0.090
	기타	-0.308	0.783	-0.062	0.325	0.047	0.388	-0.097	0.220	-0.383***	0.099
혼인상태 (기준:미혼)	기혼 유배우	-0.654	0.538	-2.800	2.126	-1.453	1.231	0.162	0.313	0.547**	0.169
	별거	-2.885***	1.046	-1.853	2.246	-2.776*	1.369	0.422	0.624	0.489	0.346
	이혼	-2.804***	1.026	-3.288	2.191	-2.416	1.368	-0.201	0.576	0.221	0.168
사별	-8.856***	1.281	-1.609	2.161	-1.464	1.374	0.055	0.400	0.203	0.170	
ln가계소득	0.054	0.162	-0.029	0.081	0.562***	0.091	0.139*	0.062	0.403***	0.046	
ln금융자산금액	0.007	0.027	0.010	0.013	0.038*	0.017	-0.001	0.012	0.011	0.010	
ln부채금액	-0.016	0.027	0.017	0.013	0.005	0.017	-0.006	0.012	-0.014	0.008	
상수	41.637***	7.894	10.931**	4.042	-22.554***	4.395	-23.083***	2.868	-1.151	1.302	
R-square	0.0244		0.0252		0.0453		0.0506		0.0168		
f ²	0.03		0.03		0.05		0.05		0.02		

*p < .05, **p < .01, ***p < .001

5. 결론

본 연구는 가계의 성공적인 은퇴설계안 마련에 기여하고 은퇴가 가계를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총 소비지출규모와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비중이 은퇴 전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전에 비해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우리나라 가계에도 은퇴소비퍼즐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계의 은퇴 전후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 은퇴 전 해에 비해 은퇴 다음 해의 총 소비지출이 약 8.9% 감소하였다. 은퇴 후 가계의 균등소비지출이 은퇴 이전 대비 13.3% 줄어든다는 석상훈(2010)의 연구보다 그 감소율이 작긴 하지만, 가계가 은퇴 후 소비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은퇴 후 일부 소비비목의 지출에 유의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구주의 은퇴로 인해 노동관련 지출인 외식비, 차량유지비, 통신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교육비 지출액과 지출비중이 유의하게 줄어 은퇴 전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변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비목의 지출액 순위에 큰 변화가 없고 은퇴 전후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에 유의한 변화가 많지 않음을 볼 때, 은퇴 후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이 은퇴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은퇴자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은퇴 후 가계의 필요(wants)보다는 욕구(needs)에 기반한 소비지출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은퇴 이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급격한 소비지출양식의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으며, 은퇴 전후로 달라지는 가계의 소비니즈와 관련된 특정 소비비목(교육비, 보건의료비)의 지출규모만이 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른 조건이 통제했을 때, 가구주의 은퇴 자체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요인이었으나, 소비지출양식에는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가구주가 은퇴하게 되면 가계의 총 소비지출이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변수는 가구주의 은퇴로 인한 심리적 변화나 여가시간의 확대 및 라이프스타일 전환에 따른 소비니즈 변화를 내포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소비지출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은퇴 자체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원 수나 혼인상태 등 가계 특성의 표면적 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다. 한편, 소비지출양식과 관련해 은퇴의 영향으로 통신비, 교양오락비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내구재구입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소비비목별 지출비중으로 볼 때는 통신비 비중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개별 소비비목의 지출규모와 지출비중은 은퇴로 인한 심리적, 이면적 변화보다는 가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등 실질적으로 소비니즈를 결정하는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퇴의 영향으로 총 소비지출 규모는 축소되지만 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은 변하지 않으며,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았던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비교 분석과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은퇴 직후 가계의 총 소비지출은 은퇴 직전 소비지출의 91.1% 수준이다. 은퇴와 맞물린 가계 특성의 변화, 은퇴 자체가 야기하는 심리적 변화 및 가계 특성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면적 소비니즈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8.9%의 소비지출 감소를 가져온다. 은퇴 이외 다른 요인의 변화를 통제하더라도 은퇴 후 약 3.9% 소비지출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가계에도 은퇴소비폐절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전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욕구와 필요, 선호를 보여주는 소비지출양식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비지출양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소비지출규모만 줄어드는 것은 은퇴자 가계의 소비에서 오는 효용이나 만족감이 은퇴 이전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